



애송이 여변호사, 1억원 당첨!

올해 처음으로 법률회사에 입사한 여류 변호사 최모29, 경기도 포천씨 직원들과 환송식이 끝난 후 산 자치복권 10장에서 1억 당첨복권이 나왔다.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사법고시 공부. 두 번의 낙방 끝에 드디어 합격, 주위의 부러움을 사며 사법 연수를 마치고 법률 회사에 입사했다. 다른 직업보다는 여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자신의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한 고시공부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공부야 워낙 이력이 붙어 걱정이 없었지만 한창 팔팔한 나이에 도서관에 앉아 책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청춘에 그리 좋은 풍경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공부해야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못나가고..... 그것도 두 번이나 낙방을 하자 포기하고 오기 속에서 갈등도 생기고. 하지만 그녀는 정상에 올랐고 남보라는 듯이 고시합격증을 받아냈다. “이제는 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맘껏해야지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왔죠.”

하지만 그녀의 꿈은 단지 꿈에 불과했고 그녀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녀는 일 속에서 허둥지둥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했다.

그녀가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첫 회식 때 그녀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생각으로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발휘해 술을 한 잔 했고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선배 변호사들한테 토로했다. 선배들은 이러면서 커가는 것이라고, 공부는 경력이 아니라 경력을 쌓기 위한 문밖에 안된다고, 자만심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라고... 그녀는 마음에 새길만한 소중한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풀림을 느꼈다. 2차를 가기전 선배 변호사들과 기분이 좋아 산 자치복권 10장에서 1등이 나오자 선배들은 그녀를 행개래까지 쳤다고. 물론 2차 술값은 생각지도 않은 최씨의 지갑에서 몽땅하게 나갔다고. ☹